

全 柱 雄 先生님



大學時節에 풀땀을 본 축구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71歲의 고령인데도 정정하사기가 이물레 없다.

서울大齒大 第7回卒業生(1936年)이신 全柱雄先生님은 齒科醫師 40年生活中 外國人患者(外國軍人)를 가장 많이 본 齒科齒師중에 한사람이다.

첫 開業地는 咸興市의 大京齒科醫院, 8.15解放後 個人病院이 許容되지 않아 例外없이 咸興市赤十字病院 齒科科長으로 일하게 되었다. 여기서 約 3個年間 쓰러진 軍人만을 專擔하는 齒科醫師가 되었으니 찾아온 患者數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 가운데 갖가지 秘話가 많으나 誌面關係로 省略한다.

1, 4後退時 越南, 巨濟島, 大邱市를 거쳐 釜山에서 大京齒科를 開設했는데 公교롭게도 外國軍人들만이 찾아왔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英國軍等等이었다.

이때 지나칠수 없는 追憶한토막, 英國軍將軍이 破折된 full crown을 들고와서 2日內에 똑같이 만들어서 裝着해 주면 120\$을 주겠다고 하기에 誠心껏 만들어 約束대로 裝着해 주었더니 놀라면서 180\$을 갖이 건네주며 「韓國齒科醫師가 第一」이라고 몇번이고 뇌짚었다.

그後 服地한번을 보내주기도 했다.

齒科臨床面에서 經驗을 通하여 느낀것인데 反對咬合이, 即 下顎이 上顎밖으로 나온 사람이 相當數있었는데 男子가 그런 境遇 夫人이 먼저 世上을 떠나고 女子일경우 男便이 먼저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反對咬合齒를 갖인 사람끼리 만나면 有福하게 살더라는 것이다. 勿論 科學的으로 追求해본 것은 아니나 齒科醫師로서 몹시 究明해 보고 싶다고 하신다.

觀光과 낚시가 趣味이며 2男 2女의 子弟가 모두 最高 學府를 기쳤다. 家訓 健實·正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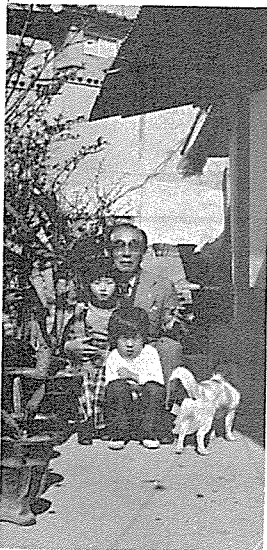
生辰을 祝福하며 萬壽無疆을 빈다.

全柱雄 1908年 9月 16日生

全一齒科醫院 院長

서울 中區 南倉洞 47의 13

(23) 7034



自宅庭園에서 孫子孫女와의 한때(左)와 觀光을 즐기시는 全先生님은 어느날 夫人과 함께 昌慶苑을 찾았다(右)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중로구중로5가 231-9
대원백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연